불자 세상보기

환경호르몬은 '과학의 저주'

정자수 격감-암 발생 등 種소멸 위기
日, 화학물질 규제…정부 대책세워야

최근 젖병, 장난감 등과 함께 환경호르몬이 검출된다 아니다 해서 논란을 빚고 있는 컵라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7일 10분 이내에 먹으면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식약청의 발표는 무책임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논란이 계속되자 1회용 포장용기 사용을 꺼리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 컵라면 제품은 판매가 절반 가량이나 줄었다.

'21세기 최대의 환경재앙', '과학의 저주' 등으로 불리우는 환경호르몬은 자연을 무자비하게 파괴해 온 인간이 받을 '인과응보'는 아닐까.

환경호르몬 이란 '환경호르몬 내분비교란물질(endocrine disruptor)'이란 말은 '환경'에 노출된 화학물질이 생체 내로 유입돼 마치 '호르몬'처럼 작용한다는 의미에서 만들어졌다. AIDS나 암보다 더 심각한 독성물질. 작년 일본학자들이 NHK 방송에 출연했을 때 처음 등장한 용어다. 생물체의 성장발육을 조절하는 호르몬의 생산·분비·운반·대사·결합기능 등을 교란시키는 유해화학물질이다. 먹이사슬을 통해 생명체의 성기능이나 생식기능, 면역기능을 파괴해 결국 종을 소멸시킨다.

199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환경호르몬의 위해성을 지적하기 시작한 세계야생보호기금(WWF)은 자연에 노출된 환경호르몬의 종류를 67종(일본은 1백43종)으로 선정했다.

피해사례 환경호르몬의 폐해는 지난 70년대초 처음 알려진 뒤로 미국 오대호 지역과 플로리다에서 야생동물의 이상 생식기능, 영국에서 암수동체 잉어 발견 등의 사례가 발견됐다. 올해 초 노르웨이에서는 수컷과 암컷의 성기를 함께 지닌 북극곰 새끼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또한 최근 50년동안 남성의 정자수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유방암, 자궁암, 전립선암 등 생식과 관련한 암 발생률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95년 경남 양산의 한 전자회사 부품공장에서 세정용 화학물질을 다루던 여직원 20명 가운데 18명이 생리중단 등 불임현상을 일으켰다.

대책 정부는 지난 5월말 환경부 등 각 부처관계자와 민간 환경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대책협의회와 전문연구협의회를 구성, 내년부터 환경호르몬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2008년까지 위해성 평가와 정보망 구축, 과학적 통합관리방안을 마련한다는 등의 장·단기 계획을 발표했으나 대응이 늦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반해 일본은 지난해 적극적인 규제대책을 마련하고 올해초 정부차원의 대책기구를 구성, 올해에만 1천억원이 넘는 추경예산을 배정했다. 미국도 지난 95년부터 환경보호청을 중심으로 환경호르몬에 대한 종합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미의회는 식품관리법과 음용수법을 개정해 식품 및 수질에서 환경호르몬으로 밝혀진 화학물질의 분석을 의무화 했다. 자연이 인간에게 던지는 준엄한 경고를 차분히 받아들이고 꼼꼼하게 대책을 세우는 지혜를 모을 때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일본 20대 남자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기준에 맞는 정자수를 가진 남자는 34명에 1명꼴로 밝혀졌다. 사진은 환경운동연합의 환경호르몬 실태조사 촉구 캠페인.

불교의 눈 "자연훼손의 인과응보"

"인간은 자연을 이용하기를 꿀벌이 꽃가루를 채집하듯 하라. 꿀벌이 꽃의 아름다움이나 향기를 다치는 일이 없듯이 사람도 자연을 이용할 때 자연의 풍요로움이나 아름다움을 오염시켜서도 안되며 자연에게서 회복력과 활력소를 빼앗아서도 안된다."〈법구경〉 인간에 대한 환경호르몬의 '대반격'. 꿀벌이 꽃가루 채집하듯 자연을 이용했으면 이런 사태가 일어났을까. 자연의 자정력을 파괴한 인간의 인과응보임에 분명하다. "일체의 유정은 무량한 수명을 갖게 하라. 항상 즐겁게 살고 죽음이란 말마저도 없어지게 하라"는 〈보리행경〉의 가르침을 따랐다면 서방 극락정토가 이 땅에 펼쳐질텐데. 홍성식 녹색환경감시단장은 "자연의 이치를 거스리지 않고 소박하게 살았다면 환경호르몬은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기업들은 돈만 벌면 된다는 생명경시의 상혼을 자성하고 환경상품을 만들어야 한다. 시민들도 1회용품 안쓰기, 쓰레기 안버리기 등의 작은 실천으로 자연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들었다

6월26일 제주 원명선원에 한 기독교인이 난입해 대웅보전에 봉안된 불상 7백50여기를 부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밖에도 지난 5월 서울 보덕사 훼불사건을 비롯해 전국 각 사찰에서 이같은 훼불행위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부처님께서는 삼보를 비방하면 무간지옥에 떨어진다고 말씀하셨다. 또 온갖 삼보를 드러내 각기 설한다면 불·법·승의 다함 없는 바다가 더욱 광대해진다고도 설하셨다. 삼보귀의의 공덕과 삼보비방의 과보에 대한 부처님 말씀을 들어보자. 〈편집자 주〉

삼보비방 "이단이 되어 착한 이 해치니…"

▩세상의 범부가 삼보를 공경치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지 않으면, 귀신이 그 마음을 어지럽게 하므로 서로 다투며 착한 이를 해치게 된다. 이런 악인은 능히 이단이 되어 시비를 그르쳐 집착하며, 음모를 꾸며 잘못된 행위를 막 행할 것이다. 〈대교왕경〉

▩삼보를 공양 예배하며 찬탄 수희(隨喜)하여 부처님들께 권청(勸請)하면, 삼보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순후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성장해서 능히 무상의 깨달음을 구하게 된다. 또 불·법·승의 가호를 받는 탓으로 업장을 없애고 선근이 퇴전(退轉)치 않는다. 〈기신론〉

▩선남자야, 마음을 돌려 무엇을 위함으로써 복을 닦고자 할진대 세 가지 길이 있으니, 불보·법보·승보가 그것이다. 승을 공양하면 그 복이 백 배로 늘어날 것이요, 법을 공양하면 그 복이 천 배, 불을 공양하면 그 복이 만 배가 될 것이다. 이는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는 무한의 복이니라. 〈대교왕경〉

▩보살은 응당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고 항상 마음을 집중하여, 불을 염하고 법을 염하고 승을 염해야 하느니라. 어째서 그런가? 이 귀명(歸命)의 공덕의 힘으로 무량한 선근을 성취하게 되며, 또 유정(有情)으로 하여금 모두 불을 염하고 법을 염하고 승을 염하게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누구건 이것을 염할 때에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일 뿐, 내가 어느 유정에게는 호의를 베풀어 도로 끌어들이고, 어느 유정에게는 박하게 대해 이를 배척하는 일이 있겠는가. 불·법·승 삼보를 염치 않는다면, 늘 노여움에 얽매이게 될 것이다. 〈보살장정법경〉

▩삼계 속에서 으뜸인 것은 삼보다. 그러므로 애써 이를 일으키고 드러내면, 그 공덕으로 장차 천주(天主)가 되리라. 〈제법집요경〉

▩만약 청정한 신심을 지닌 사람이 있어서, 여래 계신 곳이나 성문(聲聞) 있는 곳에서 이 가르침을 듣잡고 크게 착한 뜻을 일으켜, 불·법·승에 귀의해 여래의 청정한 계법을 받는다면, 이는 다함이 없는 공덕이므로 큰 과보가 있을 것이다. 〈존나경〉

▩중생들이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지 않고 여러 악업을 짓는다면, 제취(諸趣)에 윤회하여 끝없이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대반야경〉

TV도 영화도 귀신잔치

사회불안감·미신조장 우려

"마구니는 생사를 즐기는 귀신의 이름이고, 팔만사천 마구니는 중생의 팔만사천 번뇌를 말함이다."〈선가귀감〉

귀신이야기가 극장가와 TV방송에서 봇물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다. 현재 상영중인 영화 '여고괴담'을 비롯해 TV방송 3사가 모두 귀신을 소재로 한 프로그램을 경쟁하듯 내보내고 있다. 현재 방송3사에서 귀신이야기를 다루는 프로는 KBS 2TV '미스테리 추적' '일요일은 즐거워' '김창완의 이야기 셋', MBC TV '오늘은 좋은날' '다큐멘터리 이야기속으로', SBS TV '기쁜우리 토요일' '토요미스테리극장' '전설야사' 등이 있다. 이외에 KBS는 6일부터 '전설의 고향'을 방영하고 극장가에서는 코믹 잔혹극 '조용한 가족'을 필두로 귀신영화 '퇴마록'과 '자귀모' 등의 상영을 앞두고 있다.

여름철을 겨냥한 납량물로 쏟아져 나오는 이같은 프로그램에 적지 않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박남진 신경정신과의원장은 "공포영화류는 IMF관리체제로 야기된 억압된 공포심리가 귀신이야기를 통해 발산된 집단무의식의 표출로 볼 수 있다"면서 "권선징악과 인과응보를 강조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지나치게 자극적으로 흘러 불안한 사회심리를 더욱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광준 동서심리학연구소장은 "공포물에 몰두하게 되면 심성자체가 옳지 않은 방향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좌선 염불 간경 사경 등 자신의 본성을 찾는 수행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미아찾기 인터넷 사이트

한국복지재단(회장 김석산) 어린이찾아주기 종합센터는 7일 '미아 찾기 인터넷 사이트(http:www.missingchild.or.kr)'를 개설했다. 이를 통해 누구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센터에 등록된 5만1천2백38명의 미아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미아 발생 신고도 인터넷으로 직접 할 수 있다. 센터 측은 인터넷을 통해 전국적으로 단일화된 미아 수배 체계가 확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센터는 7일부터 16일까지 전국 66개 전화국에서 미아 부모들이 인터넷을 쉽게 이용하도록 도와주는 행사를 개최한다. (02)777-0182.

실직자 가족에 '사랑의 인술'

부산 범천동 현대안과(원장 김창근·41)가 실직자와 가족들에게 사랑의 인술을 펼치고 있다. 현대안과는 올 연말까지 실직자와 그 가족들에게 일반 진료와 검사를 무료로 해주고 각종 수술의 경우 비용을 50% 이상 깎아주기로 했다. 또 이 기간중 일반환자 진료비와 수술비의 일부를 실업기금으로 내놓기로 했다. (051)888-3132.

통조림에 방부제 포르말린

통조림의 부패 방지를 위해 암을 유발하는 유독물질인 '포르말린'을 사용해온 통조림 제조업자들이 처음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형사2부는 8일 우리농산 대표 이종순씨(50)와 이 회사 공장장 서기복씨(43)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등 혐의로 구속하고 대진산업 대표 노권호씨(43), 남일종합식품 대표 이길성씨(53)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수질오염사범 1091명 적발

대검 형사부는 5일 지난 4월16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한강 등 4대강 주요 상수원 수질오염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1091명을 수질환경보전법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이 가운데 5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산업폐기물 등 오염물질 불법처리사범이 335명으로 가장 많이 입건됐고, △무허가 배출시설 230명 △배출시설 비정상 가동 197명 △불법 건축물 27명 △행정조치 위반 21명 △기타 281명 등이다.

고액탈세자 14명 출국금지

사회 지도층 비리를 수사중인 검찰은 7일 탈세 혐의로 고발된 고액탈세자 17명 가운데 이창재 고려통상 회장, 박영일 미도파 회장과 인기가수 김건모, 신승훈씨 등 14명을 출국금지시키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지검 특별범죄수사본부는 이들의 탈세액과 수법 등을 정밀 조사한 뒤 구속 또는 불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촌지-체벌교사 3개월 정직

촌지를 받거나 학생들에게 체벌을 가한 교사들에 대해 무더기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7일 학부모들로부터 촌지를 받은 강남구 D초등학교 S모교사(53) 등 5명에 대해 각각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또 초등학생에게 체벌을 가하고 학생 및 학부모들로부터 선물을 받은 서울 중구 K초등학교 J모교사(61·여)에 대해서도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조치했다.

새상품 항균도마 '박테킬러'

세균을 99.9% 박멸할 수 있는 항균도마 '박테킬러'. 일본 KANEBO의 박테킬러 항균제(미국 F.D.A.인증)를 투입하여 번식력이 강한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비브리오균을 박멸한다. 특히 O-157을 완전히 박멸할 뿐 아니라 탈색 및 탈취효과까지 있다. 일본 미생물시험검사소 인증. A형 2만5천원, B형 2만8천원, C형 1만1천원. 에버그린=(02)540-6645

♣ 불/자/정/보(사찰) ♣

사찰부지안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명산 '神魚山' 줄기
(김해시 상동면 묵방리)
◆ 면적 : 가) 6,700평(전체 준농림)
나) 30,000평(준농림 18,400평, 농림 11,700평)
◆ 용도 : **사찰, 납골당, 부도탑, 실버타운 전원주택, 종합병원, 동호인주택 연수원, 골프연습장, 수련장, 사설학원**
◆ 교통 : 5분:인제대학교, 가야골프장, 김해상동 I.C(예정)
7분:김해 I.C 11분:김해 대동 I.C
18분:김해구포역, 김해국제공항
21분:양산시 23분:창원시 25분:마산시
◆ 도로 : 가), 나)각각 도로 접함. 현재 5톤 트럭 출입가능
(98년 6월 폭 8m 아스팔트 확장.포장공사 착공)

TEL. 0525)32-8322~4
<자택> 051)335-6392
011)881-4863
012)1568-6392

금화 **공인중개사**
(김해시 어방동 26B 15L)

◆ 포교당 양도
◇ 위치 : 인덕원 사거리 부근
◇ 실평수 : 40평, 상가주택 4층
◇ 법당 25평, 방 3, 기름보일러,
◇ 최고시설 (1억이상 투자했음)
◇ 가격 : 전세 보증금 3,800만원/권리금 5천만원
0343)24-5850/017)281-1231

◆ 포교당
◇ 45평형, 방 4개, 법당 20평
◇ 세면장 있음
◇ 보증금 2천만원에 월 60만원
권리금 1천5백만원
청 운 사
02)807-9381/011)230-7511

◆ 사찰 및 부지
◇ 위치 : 경남 진주시
◇ 부지 : 약 2,000평(평토작업완료)
◇ 요사 : 28평(임법당 14평, 방4개), 7평(부엌, 욕실, 창고)
◇ 가 격 : 2억 5천
◇ 특 징 : 계곡앞에 저수지, 양쪽 암반계곡, 기도처나 선원용도, 진주시내 15분, 마산 I.C. 20분, 부산 1시간 거리, 전화·전기·도로 있음.
016)589-0560
0591)758-3445

유치원 건립 동참 취지문

어느 신심있는 불자 가정에 할머니를 따라 절을 다니던 어린 손자가, 유치원에 들어갈 나이가 되어 집 근처 유치원을 찾았습니다. 불교 유치원은 없고 교회와 성당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이 있었는데, 교회보다는 성당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이 좋겠다고 판단한 이 불자집에서는 손자를 성당의 유치원에 입학 시켰습니다.

입학식날, 간식시간이 되어 수녀님이 감사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다함께 "기도합시다" 하자 손자는 벌떡 일어나 합장을 하고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하며 큰소리로 염송을 했습니다. 수녀님이 깜짝 놀라 그렇게 하는게 아니라고 다시 성당의 기도방식을 가르쳤지만 이 손자는 아니라고 머리를 내저으며 할머니께로 뛰어가 집에 가자고 손을 끌었습니다. 할 수 없이 손자를 데리고 집에 돌아오며 수녀님 말씀대로 하자고 타일렀지만 끝내 유치원을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손자가 배우고 익힌 기도는 합장하고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어릴때 배움의 습성이 중요한가를 절실히 느낄 수 있는 이야기 입니까.

저희 법륭사는 경기도 서해의 신흥도시로서 시화공단을 배후한 급진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도시에 위치하여 시청사에 인접해 있으며 좌우 주위에 고층 아파트가 수십동씩 신축되고 있는 곳입니다. 교회 270여 개소 사찰 13개소의 빈약한 불교 불모지로서 포교의 시급함을 물론, 2000년 2월에 동시 입주되는 아파트 인구에 어린 새싹불자들의 포교의 거점이 전무합니다. 30여 개소의 유치원중 불교 유치원은 단 한께 없는 실정입니다. 이웃 기독교에서는 유치원을 벌써 여러곳 신축해서 2000년 입주민을 대비해 놓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법륭사에서는 어린 불자들을 위한 교육 불사에 뜻을 같이 하고져 하시는 전국의 신심 있는 불자 여러분의 동참을 널리 바랍니다.

불기 2542년 6월 일

■동참연락처 : (우 429-250) 경기도 시흥시 하중동 476
☎(032)697-1155,1177 FAX 697-1178 (본인의 의견,성명,연락처등을 보내 주십시요.)
■동참온라인 : 국민은행 265-24-0008-891 이근회

대한불교조계종 천화원 법 륭 사
주지 이덕기 합장